朝鮮 後期 場市 變動의 樣相

—전라남도의 장시를 중심으로—

고 석 규

1. 머리말
2. 전라남도의 상업권 구분
3. 전라남도 장시의 발달과 그 특징
   1) 영산강 유역권 장시의 발달
   2) 섬에 나타난 장시
   3) 큰 장의 不在
4. 장시 변동의 변수
   1) 국가=관의 역할
   2) 상설점포와의 공존
5. 맺음말—장시의 근대성과 도시문제

1. 머 리 말

조선후기는 1960년대 이래 비록 주목되는 연구 영역은 바뀌었지만 시기 자체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선발 주자였던 경제사 특히 상공업사에 대한 연구들은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수그러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잠자던 토끼처럼 거북이에게도 뒤떨어진 연구분야가 되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각 분야간의 상호관계를 유기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후기 장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경상도를 필두로 전라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까지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있다.(1) 자료의 활용이나 방법론의

(1) 주요한 사례 연구들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韓相權, 1981「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硏究 —慶尙道地方을 중심으로—」『韓國史論』7, 서울대 국사학과

모색도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이제 장시 발달의 전국적 양상도 어느 정도 그려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장시 발달의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 내지 고유성이란 점에 주목하려 한다. 그 고유성은 장시 일반에서도 또 전라남도의 경우에서도 각각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상품화폐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까지 들어선 지금 우리나라에 의연히 남아 있는 장시의 끈질긴 생명력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의문이다. 지금 광주에 가면 말바우사거리에 말바우장이 선다. 말바우장은 대규모 상설시장인 농산물종합직판장 앞에서 농산물을 파는 장이다. 2·7일이 큰 장날이고 4·9일이 작은 장날로 한달에 12번 선다.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에서는 이채롭게 보이는 장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장은 언뜻 보기와는 다르게 전혀 이채롭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장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상설시장과 전혀 경쟁하지 않는 정기시, 아니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루고, 또 어떤 점에서는 상설시장을 도와주고 있는 정기시, 장이 서는 날 상설시장도 장사가 잘 된다. 상설점포와 정기시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지방에서는 어렵지 않게 본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장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편적인 경제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

이와는 반대로 서남해지방의 중심 도시인 목포에는 전혀 정기시장이 없다. 목포는 잘 알다시피 개항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화한 곳이다. 따

정승모, 1983「농촌정기시장체계와 농민 지역사회구조－전라남도 광양군 일대의 사례를 중심으로－」『호남문화』13,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金大吉, 1989「18~19세기 地方場市에 대한 一考察－全羅道地方을 중심으로－」『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金大吉, 1992「朝鮮後期 京畿道의 場市」『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李憲昶, 1990「홍성지방의 시장발달사」『洪城郡誌(增補版)』

李憲昶, 1994「朝鮮後期 忠淸道地方의 場市網과 그 變動」『經濟史學』18, 經濟史學會

李憲昶·金鍾赫, 1997「京畿地域의 市場變動」『京畿地域의 鄕土文化』(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라서 처음부터 상설시장이 들어섰다. 잠시 쌍교장이 개항 즈음해서 들어섰으나 곧 사라졌고 다시는 서지 않았다. 광주는 지금 목포보다 훨씬 큰 대도시인데도 여전히 장이 서는데 왜 목포에는 장이 없을까? 뭔가 전통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장시발달의 고유성을 전통 속에서, 그리고 전라남도의 사정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소박한 목적이다.

둘째로 전라남도에는 왜 큰 장이 없을까라는 의문이다. 『萬機要覽』의 「鄕市」조를 보면, 전국에 걸쳐 큰 장들을 소개해 놓고 있다.(2) 물론 『만기요람』의 기록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을텐데, 그 중 전라도에서는 전주의 읍내장과 남원의 읍내장을 꼽고 있을 뿐, 전라남도에는 해당하는 장시가 없다. 가장 있을 법한 영산강 유역권의 중심지인 나주의 장도 『만기요람』에서 구분하는 큰 장에는 속하지 않았다. 왜 이처럼 전라남도에는 큰 장이 없었을까? 이 글에서 풀어 보고자 하는 또다른 숙제이다.

이상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 속에서 장시 일반의, 또 전라남도 장시의 고유성이 숨어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라남도 상업권의 대강을 그려보았다. 이어서 장시발달의 양상을 장시 발상지인 영산강 유역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전라남도 장시발달의 고유성은 무엇이며 왜 그런 고유성을 낳게 되었는가를 찾아 보았다. 그리고 장시 변동의 고유성을 초래하게 되는 변수들을 찾아 보았다. 끝으로 장시가 겪었던 근대 경험의 문제를 맺음말을 대신해서 시론격으로 제시하였고 장시의 연망과 도시발달의 상관성도 지적해 보았다. 깊이 있는 천착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가설에 그치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점 기회가 닿는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2) 『萬機要覽』「各廛」「附 鄕市」
"경기의 廣州沙坪場·松坡場·安城邑內場·交河恭陵場, 공충도의 恩津江景場·稷山德坪場, 전라도의 全州邑內場·南原邑內場, 강원도의 平昌大化場, 황해도의 兎山飛川場·黃州邑內場·鳳山銀波場, 경상도의 昌原馬山浦場, 평안도의 博川津頭場, 함경도의 德源元山場이 가장 큰 장이다."

2. 전라남도의 상업권 구분

여기서는 전라남도 땅의 생김새에 따라 자연히 구분되는 지역과 인위적으로 나누는 행정구역을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을 찾아 보고, 여기에 다시 상업의 연계망을 그려 넣어 이른바 전라남도의 상업권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스키너는 지역을 구분할 때 지형지역이란 말을 썼다.(3) 왜냐하면 지역의 구분이 지형단위와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형은 어떤 권역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된다. 전라남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고 그 안에서 연관성이 높은 지역들을 구분해 보기로 하자. 먼저 『택리지』에서 구분에 기준이 될만한 부분들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마이산의 서쪽과 북쪽에서 뻗은 두 지맥은 鎭岑과 萬頃에서 그쳤다. 거기에서 가장 긴 것은 蘆嶺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 서북쪽 두 지맥은 부안·무안을 지난 다음 흩어져서 서해 복판의 여러 섬이 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긴 것은 동쪽으로 가서 潭陽 秋月山과 광주 무등산이 되었고, 추월산과 무등산 맥이 또 서쪽으로 뻗어서 영암 월출산이 되었다. 월출산에서 또 동쪽으로 가서 광양 白雲山에 그쳤는데, 꼬불꼬불한 산맥이 갈짓자꼴과 같다. 월출산 한 맥이 남쪽으로 뻗어 가서 해남현 縮頭里를 지난 다음, 남해 복판의 여러 섬이 되었고, 바닷길 천리를 건너서 제주 한라산이 되었다."(4)

담양 추월산과 광주 무등산이 전라남도를 동서로 나누는 기점이 되며 영암의 월출산이 서쪽을 남북으로 나누고 광양의 백운산이 동쪽을 남북으로 나눈다. 산은 강을 끼게 마련이다. 다만 산이 시작되는 곳에는 큰 강이 없다. 동북지역이 그렇다. 나머지 지역에는 각각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이 이 산들 사이를 흐르면서 각각 유역권을 하나로 묶어 준다. 산은 나누고 강은 묶는다. 또 전라남도는 서남쪽이 바다에 면해 있다. 따라서 지역을 묶어주는데는 바다도 한 몫을 한다. 특히 탐진강을 끼고 있는 서남해안 지역이 그렇다. 따라서 이곳은 지역을 묶어주는 역할의 몫이 탐진강보다는 바닷길이

(3) G. W. Skinner 著/今井清一 譯, 1989 『中國王朝末期の都市』, 晃洋書房, 4쪽.
(4) 『擇里志』「居總論」「山水」, 乙酉文庫 62, 201쪽.

크다. 그리고 노령산맥의 끝자락은 영광을 영산강 유역권에서 떼어내 하나의 소권역을 이루게 한다. 자연이 나누어준 지형에 따라가 보면 전라남도는 4개의 대권역과 1개의 소권역으로 나누어 짐을 알 수 있다. 먼저 4개의 대권역은 ①나주의 영산강 유역권, ②광주권, ③영암의 동쪽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권, ④순천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유역권 등이고, 1개의 소권역은 ⑤영광권이다.

먼저 나주 영산강 유역권을 구분하는 지형적 특징을 보자.

"나주는 노령 아래에 있는 한 도회인데 북쪽에는 금성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영산강에 임했다. 고을 관아의 판세가 한양과 흡사하여 옛부터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

"영산강은 서쪽으로 무안·목포에 흐른다. 강을 따라 내려가면 경치 좋은 마을이 많다. 강을 건너면 큰 들이 되는데 동쪽으로 광주와 경계가 닿았고, 남쪽은 영암과 통했다. 기후가 화창하고 물자가 많으며, 지역이 넓어서 마을이 별과 같이 깔려 있다. 또 서남쪽을 지나 바다를 통해 물자를 실어들이는 이익이 있어서 광주와 함께 이름난 고을이라 일컫는다."

"노령의 서쪽이 영광·함평·무안이고 남쪽이 장성·나주인데 이 다섯 고을은 샘물에 장기가 없으니, 노령 북쪽의 여러 고을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5)

이 권역은 나주가 중심이 되고 영산강이 연결의 고리가 된다. 해당 군현은 나주 외에 서쪽으로 함평·무안에 이른다. 장성의 일부도 이 권역에 속한다.

한편,

"영광 법성포는 바다 조수가 들어오면 바로 앞에 물이 돌아 모여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가 빗살처럼 촘촘하여 사람들이 작은 西湖라 한다. 바다와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를 수납하여, 배로 실어나르는 장소로 한다."(6)

"전라도는 나주의 靈山江과 영광의 법성포·興德의 沙津浦·전주의 沙灘이 비록

(5)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乙酉文庫 62, 99쪽.
(6) 위와 같음.

짧은 강이나, 모두 조수가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7)

라는 지적에서 영광은 지형적으로는 나주권과 나누어 지나 조운을 통해 항상 밀접히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권은 또 다음과 같이 떨어진다.

"부흥산 남쪽 줄기가 담양·창평을 거쳐, 광주 무등산으로 되었다. 산 동편은 옥과 등 세 고을이며, 서남쪽은 광주·화순·남평·능주로서, 영암의 동북편이다. 오직 광주는 서쪽으로 나주와 통하고 풍토와 기후가 通敵하여 옛부터 경치가 훌륭한 마을이 많고 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도 많았다."(8)

좌도는(9) 광주가 중심이 되어 북동부권의 산군을 통할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의 통할을 받는 구례·옥과·동복·곡성 등 지리산 서남쪽에 있는 山郡들의 모습은 어떤가?

"부흥산(전라도 한복판에 있는 산) 동쪽이 임실·순창·남원·구례인데 아울러 산골 고을이다. 마이산 남쪽 골물이 임실을 지나고, 남쪽으로 남원에 이르러서 요천과 합쳐, 潺水津·鴨綠津이 되고, 물 서편은 곧 옥과·동복·곡성이다. 물은 압록진에서 비로소 동쪽으로 굽이쳐 岳陽江이 되며 남해의 조수와 통한다. 다시 지리산 남쪽을 따라 섬진강이 되어 남해로 들어가는데 섬진강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된다."(10)

"구례의 서편은 鳳洞이며 泉石이 기이하다. 동쪽에는 화엄사와 연곡사의 명승이 있고, 남쪽은 九灣村이다. 임실에서 구례까지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름난 구역과 훌륭한 경치가 많고 또 큰 마을이 많으나 그 중에도 구만촌은 시냇가에 위치하여 강산·토지와 거룻배를 통해서 얻는 생선·소금의 利가 있어, 가장 살만한 곳이다."(11)

---

(7) 『擇里志』「卜居總論」「生利」乙酉文庫 62, 170쪽.
(8)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乙酉文庫 62, 102쪽.
(9) 원래 전라도는 현재의 남도·북도 경계에 준하여 상도와 하도로 나누어 있었다. 그러다가 1569년(선조 2)에 좌도와 우도로 바뀐다. 다음 기록이 그것이다. "나주의 赴擧儒生이, 上道·下道를 左道·右道로 고쳐 줄 것을 청하니 監司가 따랐다. 좌도는 광주·능성·화순·장흥·순천·순창·남원 등의 고을로 하고, 우도는 전주·나주·해남·영암·영광·고부·부안 등의 고을로 하였다"(『선조실록』 권 3, 선조 2년 7월 갑신). 이때 좌도의 중심은 광주였고 우도는 물론 나주였다.
(10)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乙酉文庫 62, 101쪽.
(11)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乙酉文庫 62, 102쪽.

"남원과 구례는 모두 지리산 서쪽에 위치하여 물 서편의 세 고을과 더불어 옛날에는 모두 장기가 있었으므로 나쁜 지역이라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조금 깨끗하여졌다 한다."(12)

"나라 안에서 가장 기름진 땅은 전라도의 남원·구례와 경상도의 성주·진주 등 몇 곳이다. 그곳은 논에 한말 종자를 뿌려서 최상은 140두를 거두고 다음은 1백두를 거두며 최하로 80두를 거두는데 딴 고을은 그렇지 못하다. 경상도에 좌도는 땅이 모두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나 우도는 기름지다. 전라도에는 좌도의 지리산 곁은 모두 기름지다. 그러나 바닷가 고을은 물이 없고 가뭄이 많다."(13)

"전라도에는 남원의 蓼川과, 흥덕의 長淵과, 장성의 鳳淵이 있다. 모두 땅이 기름지고 이름난 마을로서, 여러 대로 살고 있는 토호가 많다."(14)

다음 서남해안권은 또 어떤 지역이 포함될까? 아래 기록을 보자.

"영암의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 여덟 고을은 풍속이 대략 같고, 그중에도 해남·강진은 탐라에서 바닷길로 나오는 목이 되어서 말·소·피혁·진주·자개(貝)·귤·유자·말갈기털·대나무 등을 판매하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여덟 고을은 모두 지역이 아주 멀고 남해와 가까워서, 겨울철에도 초목이 시들지 아니하고 벌레가 움츠리지 아니한다. 산 아지랭이와 바다 기운이 찌는 듯하여 장기로 되며, 또 일본과 아주 가까워서 땅은 비록 기름지나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다."(15)

"해남현 三洲院에서 돌 맥이 바다를 건너 진도군이 되었는데 물길로 30리이며 벽파정이 그 목이 된다. 삼주원에서 벽파정까지 물속에 가로 뻗친 돌맥이 다리 같으며, 다리 위와 다리 밑은 끊어 지른 듯한 계단으로 되었다. 바닷물이 밤낮없이 동에서 서쪽으로 오며 폭포같이 쏟아져서 물살이 매우 급하다."(16)

영암의 동남쪽 바닷가 여덟 고을이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지역이 된다. 바로 서남해안권이다. 이 지역은 영산강 하구 이남과 섬진강 이서까지에 이르는 해안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탐진강이 흘러 강진과 해남을 축으로 동서로 이어진다.

(12) 위와 같음.
(13) 『擇里志』「卜居總論」「生利」乙酉文庫 62, 167쪽.
(14) 『擇里志』「卜居總論」「山水」乙酉文庫 62, 260쪽.
(15) 『擇里志』「八道總論」「全羅道」乙酉文庫 62, 102쪽.
(16) 위와 같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 유역권이 또하나의 지형 단위로 떨어진다.

이상 전라남도를 자연지형에 따라 4개의 대권역과 1개의 소권역으로 구분해 보았다. 각 권역의 중심 고을은 『湖南廳事例』에서 전결수에 따라 구분해 놓은 대읍에 그대로 일치한다. 즉 나주, 광주, 영암, 순천 그리고 영광 등이 그것이다.(17)

자연지형에 따라 구분해 본 5개의 지역권은 여타 사정에서도 비슷하게 구분되어 움직인다.(18) 자연에 의한 구분과 인위적 구분이 대체로 일치함을 본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부세와 관련된 구분이 특히 상업권 구분과는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호남청사례』에 의거하여 대동미의 「收租」 방식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보면, 먼저 크게 미 12두를 내는 沿邑과 미 8두씩을 作木하여 내는 山郡으로 나뉜다. 이중 연읍은 다시 법성창에 捧納하는 고을과 舟橋船에 실어 直納하는 고을로 나뉜다. 따라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①주교선 직납의 연읍으로 우도의 나주·진도·영암·함평·무안·해남, 좌도의 장흥·순천·보성·낙안·강진·흥양·광양 등, ②법성창에 봉납하는 연읍으로 영광과 장성 등, 그리고 ③작목하여 내는 산군으로 광주·능주·담양·창평·동복·화순·남평·구례·옥과·곡성 등이다. 이때 ①의 경우를 ①

(17) 『湖南廳事例』「叙設」조.

(18) 이러한 지역구분은 현재 전라남도의 하위 방언구획과 비교해 보아도 그리 다르지 않다.

【표】 전라남도의 하위 방언구획

	서 부	동 부	
북부	영광·함평·장성·담양·광산·나주·화순·곡성서부	구례·광양·여천·승주동부	곡성동부
남부	무안·영암·신안·진도·완도·해남·강진·장흥·보성서부	고흥·승주서부·보성동부	

*이기갑 지음, 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회, 136쪽에서 재인용.
현재 전라남도의 시장권도 광주권, 목포·도서권, 여수·순천권, 해남·강진권 등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어 조선시기와 기본 구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정승모, 1983 「농촌 정기시장체계와 농민 지역사회구조」 『호남문화』13,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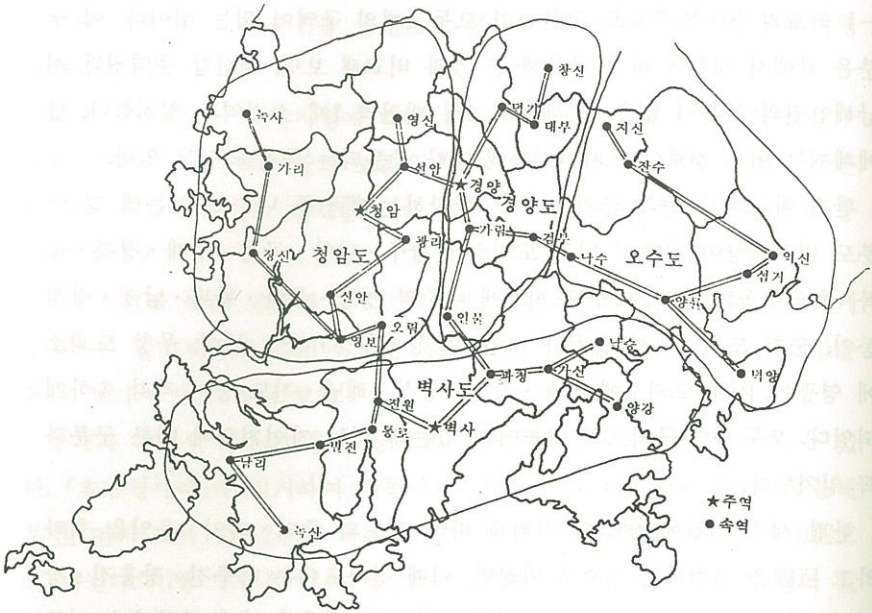
-1 좌도와 ①-2 우도로 구분하면 모두 4개의 구역이 되는 셈이다. 이 구분은 앞에서 지형에 따라 구분해 본 것과 비교해 보면, 영산강 유역권과 서남해안권의 구분이 없을 뿐 대체로 4개 대권역 1개 소권역과 일치한다. 납세체제는 어느 것보다도 자연지형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활·화살 등의 군기 납부를 관할하는 都會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구분도 비교대상이 된다.(19) 남원 도회소에 광주·담양·곡성·구례·창평·동복·화순·옥과 등이, 나주 도회소에 나주와 영암·무안·함평·남평·장성 등이, 순천 도회소에서 순천과 낙안·보성·흥양·광양 등이, 무장 도회소에 영광이, 內廂 도회소에 장흥·강진·능성·해남·진도 등이 각각 속하게 되었다.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자연지형에 따른 구분과 꼭 일치한다.

한편 세조 연간에 병조의 건의에 따라 각도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巨鎭을 설치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때 전라도에는 나주진·장흥진·광주진·남원진·부안진·순천진·전주진 등 모두 6개의 진이 설치된다. 이중 전라남도의 해당 고을의 소속을 보면, 나주진에 영광·함평·무안·영암·남평 등이, 장흥진에 보성·강진·해남·진도 등이, 광주진에 담양·장성·창평·화순·동복·능성 등이, 남원진에 옥과·곡성·구례 등이, 순천진에 낙안·흥양·광양 등이 각각 속하고 있다.(20) 광주권이 광주진과 남원진으로 나누어지는 것 외에 나머지 고을의 구분 역시 자연지형의 구분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국가기구가 관리하는 지역단위가 애당초 살펴본 자연지형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여러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구분은 驛의 관할 구분과도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특히 4개 대권역이 그러하다. 어차피 장시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연계도 교통로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는 없다. 후에 장시세를 거둘 때 그 주체가 역인 경우가 많다.

(19)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6월 갑오.
(20) 『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 9월 계미.



【그림】 朝鮮後期 全羅南道 驛의 圈域

그 한 예를 들면 1829년(순조 29) 전라우도 암행어사 成遂默이 올린 別單의 한 조목이 흥미롭다.[2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95년(정조 19)에 호남우도의 各驛이 凋弊하자 장시를 나누어 주어 거기서 세를 거두어 수용에 보태도록 하였다. 이런 조치는 계속 준수되어 많은 실혜를 주었는데, 그후 혹은 장시가 停廢되기도 하고 혹은 他處에서 占取해 가서, 여러 驛이 수세를 하지 못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역의 재정보완을 위해 장시에서 세를 거두도록 했다는 것은 역과 장시의 지리적 상관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역이 있는 곳이나 근처에 장이 선다는 점이다. 이는 장시가 교통로상에 설치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지형, 행정체계, 그리고 교통권까지도 대체적인 일치를 보이는 4개의 대권역은 전라남도의 주요 상업권이라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때 영광의 소권역은 크

(21) 『日省錄』 순조 29년(기축, 1829) 11월 30일 「全羅右道暗行御史成遂默進書達及別單」

게 볼 때 나주 영산강 유역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권역구분에 행정체계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더구나 역의 관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장시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중요한 관청을 연결시키는 大路 상에 장시가 촘촘히 배치되고 국가의 통신과 조세운송의 기능을 담당한 역 중에 장시가 개설된 곳이 많았다는 사실은 국가의 역할을 빼놓고는 상업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도 생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점 4장 1절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전라남도 장시의 발달과 그 특징

1) 영산강 유역권 장시의 발달

19세기 전반을 살았던 李馨鎭(1802~1866)은 영산강의 뜻을 나름대로 풀어본 「錦江記」라는 글에서 "(금강은) 錦城에서부터 흘러 수십 리 먼 길에 이르기 때문에 舟楫을 담을 수 있고 또 들에 물을 댈 수 있다."(22)고 하였다. 이는 영산강의 두가지 기능을 말한다. 즉 하나는 수운로로서의 기능이요 다른 하나는 관개용수로서의 기능이다. 영산강은 이 두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었다. 영산강은 관개용수가 되어 영산강 유역의 농토를 기름지게 하였고 다시 수운로가 되어 거기서 생산된 물산들을 배로 옮겨주어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혈맥이 되었다. 그리고 영산강의 중심인 나주는 그 혜택을 누리고 또 잘 활용한 고을이었다.

徐居正(1420~1488)이 1480년(성종 11) 경에 쓴 나주 객관의 동헌인 碧梧軒의 重新記에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커서 땅이 넓고 民物이 번성하다. 땅이 또한 바닷가라 메벼가 많이 나고, 물산이 풍성하여 전라도의 조세가 모이는 곳이고, 사방의 상인들이 몰려든다."(23)고 한 말은 나주가 자체 물

(22) 『竹泉遺稿』(李馨鎭, 6권 1책, 전남대 고서실) 권4 「錦江記」
"天下之江一也 不但曰江 而曰錦江者 眞有據衣 余觀夫江湖之形勝 而必先究江之爲名 蓋此江也 來自錦城而亘數十里之遠 可以藏舟楫 亦可以灌野 航不過是小洲渚 豈可爲水於遊聖人之門者乎"

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상업의 요지였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이 고을[나주]은 바닷가에 있는 먼 極邊이어서 걱정되는 바는 왜구이다. 연해의 주군이 혹은 사로잡히고 혹은 옮겨가서 騷然하여 사람이 없는데, 이 주는 그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번창하기가 거의 평일과 같아서 뽕나무와 삼이 풍부하고 벼가 들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 즐거움을 누린다."(24)

라는 말에서도 나주는 여말선초 왜구의 침범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버텨 영산강 유역의 중심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이 쓴 시에도

"… 생선 파는 바다 저자 시끄럽고, 우차는 디굴디굴 마을로 돌아가누나. 한 지방의 도회에 누대도 좋으니, 金章으로 해변에 머무름을 한하지 말라."(25)

하였다. 이 역시 나주에는 장이 섰고 또 번성했었음을 말해 준다. "생선 파는 바다 저자 시끄럽고"라는 싯귀의 일부는 바로 이런 나주의 상업적 번성이 영산강 때문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때 영산강은 나주의 위상만큼이나 튼튼한 교통로·상업로였다.

장시와 같은 농촌상업이 출현하려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다. 먼저 농업생산력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농가소득이 늘 뿐 아니라 그 늘어난 소득을 농민들 스스로 자유 처분이 가능해야 했다. 그리고 사회적 분업이 확대되어 생산물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져야 했다.(26) 여기에 덧붙여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필요했다. 15세기 후반 장시는 이러한 객관적 기반 위에서 성립할 수 있었고 실제 장시가 생기는 곳은 교통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와 무안은 그런 점에서 장시의 발상치가 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다.(27) 이렇듯 영산강 유역권은 장시 발

(2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5권 「羅州牧」「宮室」「碧梧軒」
"羅於全羅最鉅 境壤緜曠 民物繁阜 地又瀕海 有杭稻之饒 物產之富 乃一道租賦之會要 四方商旅之走集也"
(24)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5권「羅州牧」「樓亭」「撫夷樓」
(25)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5권「羅州牧」「樓亭」「望華樓」
(26) 李景植, 1987「16세기 場市의 成立과 그 基盤」『韓國史硏究』57
고석규, 1996「상품의 유통과 공납제의 모순」『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27) 장시 발상지로서 점하는 영산강 유역권의 위상에 대하여는 고석규, 「榮山江 流域의 場市와 交易」(1997, 『榮山江流域史硏究』) 참조.

달의 선구적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풍부한 물산을 생산해 내는 장시의 배후지를 만들어 준 영산강 유역과 장삿배의 통로가 되는 영산강의 수로가 있었다.(28) 영산강 유역권의 이런 좋은 조건은 조선후기라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조선후기에도 역시 "무안과 나주는 모두 호남의 樂土"라고 불릴 만큼 여유가 있었다.(29)

18~19세기 시장권이 확대하여 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들 간의 경제적 교류는 더욱더 밀접하여 갔다. 시장권이 확대된 결과 자연경제적 분산성과 지역적 폐쇄성이 무너지면서 각종 상품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동시에 상인들의 활동 무대도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邑商·村漢이 同宗이라 칭하면서 公堂에 함께 앉아서 官政을 의논했다고 할 정도로 상인의 지위는 높아졌다.(30)

19세기가 되면 장도리를 하면서 상품을 사고 파는 수천 수만의 보부상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나갔다.(31) 전라도는 그중에서도 일찍이 가장 높은 장시 밀도를 나타냈고 또 그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대읍에서 장시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가장 일찍 또 뚜렷이 나타났다.(32)

前全羅監司 李得臣이 사치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 가운데 "官府의 吏胥들까지도 세모시[細苧]를 입고 場市의 떡파는 여자도 거친 현미밥[蔬糲]을 싫어 한다."(33)라는 말이 있다. 장시에서 떡파는 여자가 거친 현미밥을 싫어하는 것은 위정자의 눈에는 분에 넘치는 행위로 보이겠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장시는 큰 부는 아닐지라고 작은 부는 만들어 주고 있었다.

(28)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고석규의 앞 논문 참조.
(29)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7월 경인.
(30) 『日省錄』 헌종 13년(정미, 1847) 11월 26일 「全羅右道暗行御史兪致崇 左道暗行御史李敎英進書啓別單」
"敎英書啓 … 光陽前縣監 徐有恕 … 邑商村漢 稱以同宗 偕坐公堂 相議官政 見者莫不駭慚"
(31) 李憲昶, 1992 「朝鮮末期 褓負商과 褓負商團」 『國史館論叢』38, 국사편찬위원회.
(32) 韓相權,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硏究—慶尙道地方을 중심으로—」 『韓國史論』7, 201쪽.
(33) 『日省錄』 정조 23년(기미, 1799) 6월 26일 계축, 28—116다—라.

이제 장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물화유통 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환, 여론 형성의 장, 정책 홍보의 통로, 그리고 서민문화의 무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떼어낼 수 없는 일상적 삶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2) 섬에 나타난 장시

전라남도 장시의 발달을 들여다 보면, 다른 지방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섬에 장시가 선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이 지역에 전국의 60%에 달하는 섬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지리적 특징 때문이긴 하지만, 섬에도 장이 설 만큼 상업이 발달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섬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호남은 어느 지역보다 배를 통한 이익이 많았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가면 섬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서 서남해안권은 새롭게 주목해 봐야할 지역이다.

섬에 대한 관심이 커짐은 아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균세사 李瑩가 호남의 海島圖를 올리고 아뢰기를, '섬 가운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활이 풍족하여 육지의 백성들보다 나았습니다. 차차 깊이 들어갔더니 登州·萊州와 서로 마주 바라본 곳이 있었는데, 대개 섬의 백성들이 모두가 죄를 범하고 도피했거나 혹은 사노로 몰래 피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섬의 백성들이 주현에 통속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후가 말하기를, '해도는 부근의 고을에 소속되어 약간의 세금을 거두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섬사람들이 생전 관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별성으로서 위의를 갖추고 들어가니, 남녀노소가 크게 놀라고 조금은 괴이하게 여기며 모두 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불러서 안심시키고 모았습니다. 풍원군이 본도의 감사가 되었을 때 고을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朝家에서 마땅히 駕御를 羈縻하는 방도를 생각해야 합니다.'…"(34)

한편, 바다가 주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컸는가는 다음 인용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4) 『영조실록』 권73, 영조 27년 2월 기축.

"충청도관찰사 이익보가 상서하였는데 …, 어염의 일은 포구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배 한척에 토지·어장 등의 세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소소한 선세가 있으니, 이는 배는 1척인데도 세금은 모두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 漁箭·船隻과 염분을 막론하고 각 아문이나 혹은 富民이 모두 本主가 되어, 漁箭의 기계와 배의 櫓楫과 염분의 鉤鐵[구철, 쇠갈고리] 등의 물품을 담당하여 준비하는 것이 거의 4, 5백 金을 사용하며 이를 結箭·造船·設鹽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본주로 하여금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른바 본주는 모두 팔짱을 끼고서 뒤로 물러나 서 있고, 오직 저 船人·漁漢·鹽夫들은 모두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의탁할 데 없는 유개의 무리들로서, 그 가운데서 사역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미 물주가 없으니 허다한 비용을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판출하겠습니까?…"(35)

이 기록에서 우리는 衙門이나 富民이 物主가 되고 船人·漁漢·鹽夫가 거기에 예속되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에서의 지주제에 상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바다의 이익이 아문이나 부민에게 전유되고 있었다. 어염선세를 거두는 균역법에서는 이를 국가가 전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장악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관아와 지역 토호들에게 분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청도의 경우이지만 전남의 바다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다도해 지역인 서남해안의 경우는 이런 관계가 더 발달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바다가 주는 이익도 더 컸을 것이다. 그런데 바다를 이용한 이익을 취하려면 역시 배가 최고였다. 그래서 그런지 배의 구매를 둘러싼 문제들이 중앙에서도 거론되고 있었다.

1692년(숙종 18)에 우의정 閔黯이 구설수에 올랐다. 호남에 나갔던 御史 李寅燁의 공초에 따르면, 민암의 一家 사람과 故 參判 姜碩賓 家가 黔毛浦에서 처분하는 배를 사려고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36) 그 배는 戰船이었고 茂長에서 전선을 산 사람은 崔厚永이었다. 그는 민암의 故吏였다.(37) 비록 민

(35) 『영조실록』 권73, 영조 27년 4월 을미.
(36)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3월 임신.
(37)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4월 기축.

암은 이를 무고라고 변명했지만, 사신의 기록에 "대개 戰船을 사려고 획책한 일에 있어 그(민암-필자)도 또한 범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38)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의정이란 최고의 지위에 있는 대신이 사람을 시켜 배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은 결국 배를 이용한 상업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배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바다는 대신이 눈독을 드릴 만큼 많은 이익을 낳고 있었다. 바다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커지는 만큼 섬 또한 경제적 위상이 높아갔고 섬 자체가 낳는 이익도 많았다.(39) 섬에 場市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추세의 반영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자.

1794년(정조 18)에 副司直 沈樂洙가 島中의 民勢에 대해 조목으로 정리된 생생한 상소를 올렸다. 그중에서 "三南 沿海의 商船으로 곡식을 싣고 섬에 들어가는 배에 대하여는 그 읍에서 따로 蠲役의 恩典을 베풀어서 趁赴의 문을 열면 그 효과가 累千石의 粟을 옮기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40)라는 말이 있어 재미있다. 섬에도 차라리 장시와 같은 것을 열어 주는 것이 진휼곡이나 옮겨 주는 것보다 구휼의 방책으로는 오히려 낫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도 商販을 목적으로 入島하는 배는 절대 禁斷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이는 그만큼 섬의 자체 구매력이 있다는 뜻이고 또 아울러 섬이 전국적 장시망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872년(고종 9)에 제작된 『朝鮮後期 地方地圖』(41) 중 「康津縣 古今島鎭地圖」에는 섬인 고금도에 장시가 있음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섬에 장시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康津縣 古今島鎭地圖」는 그림으로 그려 놓아 섬에 나타난 장시를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38) 『숙종실록』 권24, 숙종 18년 4월 임인.
(39) 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데 대한 내용은 고석규, 「조선후기의 섬과 薪智島 이야기」(1996, 『島嶼文化』1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참조.
(40)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11월 23일, 18-318하.
(41) 『朝鮮後期 地方地圖-全羅道 편-』(서울대 규장각, 1996)

3) 큰 장의 不在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조선후기에 와도 영산강 유역권이나 서남해안권의 상업적 조건은 여전히 좋았고 더 좋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라남도에는 큰 장이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萬機要覽』의 「鄕市」조에 수록된 큰 장 중에 전라남도에 속하는 장은 없다. 왜 전라남도에는 큰 장이 없을까? 그 답을 찾아가 보자.

> "임금이 호남 구관당상 원경하를 소견하고 말하기를, … 원경하가 말하기를, '호남은 곧 국가의 근본입니다. 쌀과 무명이 오로지 여기에서 나오니, 참으로 이른바 근본인 곳이라는 것입니다.'"(42)

아마도 여기에 그 답의 하나가 있을 듯하다. 즉 전라도는 국가의 근본이라는 말 속에는 이 지역이 소비지로서보다는 물산의 공급지로서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따라서 생산물이 외지로 유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전라남도는 수탈대상지였지 교역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호남민의 이익은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지배층의 속성상 지켜지기 어려웠다. 한때 호남어사 李匡德이 京船의 호남 정박을 막아 私穀이 선운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서울 3강의 연민 백여명이, 서울 사람의 7~8할이 호남에 의존하고 연강 거민도 여기에 의존한다는 이유를 들어 변통을 요구하자, 왕은 시정을 명령하였다.(43) 호남이 서울 때문에 입는 피해는 컸다. 서울과 지방의 갈등이 있다면 호남이 가장 컸고 그만큼 희생도 컸다. 이것이 호남의 상업발달을 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유사한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전라남도의 해안에 곡식을 실은 상선들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그 규모는 하루아침에 수천석을 貿取할 만한 양이었다.(44) 이런 상선은

(42)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 5월 임인.
(43) 『備邊司謄錄』 83책, 영조 4년 1월 23일, 8-245~6.
(44) 『日省錄』 순조 30년(경인, 1830) 윤4월 6일 「慶尙左道暗行御史趙然春進書達別單」

물론 전라남도 안에서 팔 요량으로 곡식을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상지는 주로 서울이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다만 수집할 뿐이었다. 그리고 물론 그 수집하는 곳은 장시와 포구였다.(45)

그렇더라고 수집의 중심지가 있었다면 그곳에 큰 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수집조차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쌀을 유통시키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게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분명한 증거는 『木浦府史』(46)에서 찾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의 출곡지로서 알려진 것은 右岸 남부에 있는 務安郡 沙浦, 進禮, 鶴橋, 古幕院, 左岸 남부에 있는 영암군의 德津, 都浦, 臥牛浦, 약간 북부 상류로 올라가면 나주군의 石海, 烟洞浦, 離別巖, 潮海, 濟倉, 榮山浦 등으로서 그중 영산포, 석해의 두 곳은 최성기에는 매일 出穀하는 玄米가 數十俵에 달했고, 그밖의 浦港은 어느 것도 10俵내외로서 格段의 차를 보인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출곡은 소량인 까닭에 지금 만약 상인이 백표 내지 2백표를 買付하려면 10일, 20일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고 통신편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부재중에 목포의 相場에 어떤 대변동이 있어도 뛰어가는 외에는 일절 알릴 길이 없다. … 개항 이래 노일전쟁까지 대개 이런 상황이었다."

실제로 후기로 오면 해창이 많아지는데 이는 소규모 분산 수집과 관련이 있다. 조창이든 해창이든 수집의 역할은 창과 관련이 깊다.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 보자.

조선초기 전라도 전체에는 두개의 조창이 있었다. 하나는 羅州 木浦에 있는 榮山倉이었고 다른 하나는 咸悅縣 西皮浦에 있는 德成倉이었다. 이 두개의 조창이 관할하는 구역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영산창은 羅州·順天·長興·潭陽·樂安·寶城·海珍·靈岩·靈光·茂珍·康津·高興·光陽·綾城·南平·和順·同福·谷城·玉菓·昌平·珍原·長城·興德·茂長·咸平·務安 등의 조세를 거둔다. 그리고 덕성창은 咸悅·全州·南原·益山·古

" 一統營 …該營處在嶺湖之間 商賈載穀之船 項背相望 四時不絶 若欲貿取 一朝可得數千石 左右沿所在穀耗條 一從時價作錢輸納 自該營貿穀排用 則幾多年積痼之弊 自可革去"

(45) 『備邊司謄錄』 248책, 철종 12년(신유, 1861) 12월 10일, 25-726다.

(46) 木浦府, 1930 『木浦府史』, 544쪽.

阜·金堤·錦山·珍山·淳昌·臨陂·沃溝·萬頃·扶安·井邑·金溝·泰仁·任實·求禮·雲峯·長水·鎭安·龍潭·茂朱·高山·礪山·龍安 등의 조세를 거둔다. 각 조창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남도·북도와 거의 일치한다. 당시는 이를 상도와 하도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따른다면 전라남도에 조창은 영산창만이 있었던 셈이다.(47) 그래서 모든 고을에서 영산창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영산창이 있던 나주는 틀림없이 큰 장의 지위를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광의 법성포창이 하나 늘어 나더니,(48) 1512년(중종 7년)이 되면, 오히려 영산창의 조창 기능이 법성포로 옮겨졌고 영산창은 江倉으로만 남게 되었다. 영산창은 조선초기의 번성함마저 잃어갔다. 그러니 큰 장이 설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고 법성포가 커졌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법성포가 전라남도의 유일한 조창이 되지만, 그나마 漕船의 수도 처음 39척에서 『속대전』 단계에 가면 28척으로 줄더니 『대전회통』 단계에 가면 21척으로 더 줄었다. 그만큼 조창의 역할도 줄어만 갔다. 그나마 법성포로의 수송은 영광이나 장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일이었다. 헌납 鄭宅河가 "능주 등 다섯 고을의 전세를 포구로 내보내면서 나주 영산강 4, 50리 되는 지역을 내버려 두고 멀리 3, 4일 길의 법성포로 수송하게 하니, 백성들의 폐단을 민망히 여길 만합니다. 원하건대 備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49)라고 하는 데서 그 어려움이 확인된다.

조세납부에서 줄어든 조창의 역할을 대신 차지한 것은 경강상인들이었다. 『속대전』에 "漕倉에 속하지 않는 여러 읍들의 전세는 모두 地土船으로 京倉에 直納한다. 【地土船이 없는 邑은 京江船의 船主 및 沙工·船卒 等을 가리지 말고 號牌를 살펴 반드시 根脚한 자를 가려 뽑아 싣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경강선에게 지토선의 대리역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면 경강상인들은 어떻게 쌀을 모아서 날랐을까? 이때 필요한 것이 해창

(47) 『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 「전라도」조
(48) 『經國大典』 「戶典」 「漕轉」
(49) 『영조실록』 권4, 영조 1년 3월 계해.

이었다.

한때 법성의 조창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사진포에 내던 정읍·흥덕·장성·고창 등 4읍의 대동미를 1771년(영조 47)에 법성포로 옮겼다. 그러나 1787년경에는 다시 모두 원상복귀되고 있다.(50) 결국 법성창에 바치던 세미들이 대부분 해당읍에 가까운 해창으로 옮겨 졌다. 금구는 海倉으로, 태인은 苗浦로 바뀌었다.(51) 구례도 鷺谷 海倉으로 이속하였다.(52)

이렇게 바뀐 곳에서는 경강선이 임운을 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1790년(정조 14)에 전라도 나주의 유학 林旭遠 等이 上言하였는데 그 요지인즉, 나주의 세곡은 거의 二萬包에 이르러 이를 운반하는 배도 17척이나 되는데, 예전에 영산포에 설창을 했을 때는 더 들어 가는 곡도 없고 배도 부서지지 않았지만, 京船으로 賃運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또 영산강에는 濟民倉이 공허하게 서있어 綾·南·羅 三邑의 兩稅를 이 곳에 거두어 두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8천석이 되어 30척의 배를 만들어도 여유가 있으니 京船을 혁파하고 漕倉을 복설해 줄 것을 청하였다. 順天 幼學 趙顯燁 等의 上言도 마찬가지로 제민창을 조창으로 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左右濟民倉을 漕倉으로 복설해 달라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나 京船이 失利하고 松政이 어려워짐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여 거부하였다.(53) 나주의 濟民倉은 穀十萬包를 쌓아두어도 오히려 여유가 있을 만큼 넓은 곳이었지만 여저히 버려두고 있었다.(54) 호남에 좌조창을 설치하자는 논의도 거부되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경강민이 실리한다는 것이었다.(55)

또 서남해의 각읍에서 漕船을 늘리려 해도 경강민 때문에 늘릴 수 없었다. 京江船人의 폐해를 알면서도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비위를 건드

(50) 『備邊司謄錄』 170책, 정조 11년(정미, 1787) 3월 29일, 16-843나.
(51) 『日省錄』 헌종 13년(정미, 1847) 11월 26일 「全羅右道暗行御史兪致崇左道暗行御史李敎英進書啓別單」
(52) 『備邊司謄錄』 156책, 영조 50년(갑오, 1774) 3월 3일, 15-170가.
(53) 『備邊司謄錄』 176책, 정조 14년(경술, 1790) 2월 13일, 17-495나.
(54) 『備邊司謄錄』 175책, 정조 13년(기유, 1789) 11월 22일, 17-441나.
(55) 『備邊司謄錄』 175책, 정조 13년(기유, 1789) 11월 22일, 17-441나.

렸다가 京司에서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56) 경상선인의 배후는 바로 서울이었다. 경강선인은 서울의 對지방침탈의 첨병이었고 경사는 이를 보장해 주었다. 이 때문에 전남의 각읍은 서울의 이익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큰 장시의 출현을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서울 및 그 이익의 수혜자인 경강상인들이었다.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경강상인의 이익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었고, 따라서 분산수세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결국 서울 중심의 경제정책, 그것이 특히 전라남도에 큰 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편 濟民倉은 漕倉으로 변환은 커녕, 아예 그 기능이 해창으로 분산되어 버렸다. 이 또한 경제권의 분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濟民穀은 1763년(영조 39)에 기민 구제를 위해 좌의정 홍봉한의 건의로 설치하였다. 전라남도의 경우, 左倉은 순천에 두어 순천·광양·낙안·구례·동복·곡성·보성·장흥 등을 예속하였고, 右倉은 나주에 두어 나주·남평·영암·무안·광주·함평 등을 예속하였다.(57) 그런데 불과 10년만인 1773년(영조 49)에 제민창의 분설 문제가 거론되었다.(58) 즉 각읍에서 제민창까지 멀리 수송[遠輸]하는 것이 폐가 된다고 하여 제민곡을 제민창으로 옮기는 대신 해당 읍의 해창에 받아 두고 다만 도회관이 文簿로서 句管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호남부터 시행하였다.

그후 1792년(정조 16)에 삼남 제민창곡을 각읍 해창에 옮기는 일의 편부가 다시 논의되었을 때,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서 "倉이 각읍에 있으면 設倉한 본 뜻이 가히 두 번 행해진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公私 모두 다행이 아니겠는가."(59)라고 하여 그런 변화 추세를 긍정하고 있다.

결국 제민창은 원래 순천과 나주라는 전라남도의 동·서부 중심에 각각 두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처럼 모두 분산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경제권

(56) 『國譯 海錦吳達運文集』(1993, 국역해금집발간위원회), 「增漕船」, 899쪽.
(57) 『국역 경세유표』Ⅲ, 208쪽.
(58) 『備邊司謄錄』 180책, 정조 16년(임술, 1792) 3월 16일, 17-964가.
(59) 『備邊司謄錄』 180책, 정조 16년(임술, 1792) 윤4월 3일, 18-1라.

의 집중현상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다.

창이 있으면 장이 서는 곳이 많다. 이를 倉市라 한다. 그리고 장시 중에는 邑市와 더불어 창시를 으뜸으로 꼽는다.(60) 그런데 제민창의 분산 조치로 해창 등이 많아진다는 것은 설사 모두는 아니라 해도 상당히 많은 창시가 서게 된다는 뜻이다. 전체로 볼 때 장시의 수는 늘어날 지 모르지만, 그만큼 장시의 기능이 분산된다. 따라서 큰 장이 성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해창은 세를 바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하였다. 곡성현의 세곡을 낙안 해창에 이봉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나온 말을 보면

> "漕倉은 1夫가 납부하는 것이 4석 1두이며, 海倉은 1夫가 납부하는 것이 4석 12두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조창에는 없는 浮費가 해창에는 잡비로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 해창에 移捧하면 浮費船價가 漕倉雜費에 비해 每夫당 11두를 加納해야 한다."(61)

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호남민에게는 어떤 이익도 없는 해창으로의 이속을 계속 추진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오직 경강민의 이익 때문이었다.

전라남도 지방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전반적인 상업발달 추세에 따라 총 유통량은 분명히 늘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집중되지 않았다. 따라서 큰 장이 설 수 없었다. 그렇다고 총체적 의미에서 전라남도의 상업이 쇠퇴하거나 정체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큰 장의 발달만이 상업발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중개지 역할로 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여의치 않았다. 전라남도에도 물론 서울로 가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다. 강진과 해남이 그런 곳이었다. 1810년(순조 10) 涼臺廛 시민들의 말 속에

---

(60) 『備邊司謄錄』 95책, 영조 10년(갑인, 1734) 4월 29일, 9-788-다.
"司勇 林秀桂上疏內 其一 八路列邑 只存邑市倉市 市傍築一公廨 名曰 常平倉 本邑 穀 先移半數於此 凡他所儲米布 量宜竝移該倉 任司別擇士類 而亦使主管 場市之收稅 一人一文 而至於駄載大賈 或收二三文 則每月六次之稅 亦必不貲 竝爲貨本"

(61) 『備邊司謄錄』 189책, 정조 23년(기미, 1799) 8월 10일, 19-59나.

"근래에 松商들이 마음대로 도거리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또 (송상들이) 제주에서 도거리하여 그 咽喉에 있는 강진이나 해남 등에서 각처의 都會地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62)

라고 하여 제주에서 강진·해남을 거쳐 각처의 도회지로 양대전 물종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대전 시민이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송상의 독점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에 앉아서 서울로 들어오는 물건만 챙기는 데서 더 나아가 직접 중개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서울의 시전상인과 송상의 대립 틈바구니에서 강진과 해남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강진이나 해남은 제주와 각처의 도회를 연결시켜 주는 물종의 경과지일뿐이지 중심기능은 없었다.

한편 왜 큰 장이 없는가에 대한 답은 장시체계가 행정체계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전라남도의 상업권이 자연지형은 물론이지만 행정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행정체계의 기본형태는 모든 하위중심체들이 단일한 상위중심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반대로 각각의 하위중심체들은 상위중심체로 정보를 올리는 체계로서, 체계 내의 모든 지역들을 변별적인 단위로 나눈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들은 하나의 상위체로부터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단선적·배타적인 성격을 띠며 상호간의 경쟁이 배제되어 있다. 전통사회의 경우에 이 두 체계가 일치할 때, 즉 향시의 입지가 행정중심지일 때 성읍시장이라 하고, 시장체계의 경쟁원리가 작용하여 행정지역과는 무관하게 교통의 요충과 물자의 집산지에 향시가 입지할 때 일반적으로 촌락시장이라고 부른다. 전라남도는 양자가 자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같기 때문이다. 즉 행정중심지가 교통의 요충과 물자의 집산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자의 영향이 크면 경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가 주는 경쟁의 배제라는 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그 점이 역시 큰

(62) 『備邊司謄錄』 200책, 순조 10년(경오, 1810) 1월 10일, 20—162라.
"涼臺廛市民等 以爲 近來 松商益熾 操縱權利 又爲都賈於濟州 出來咽喉之康津海南等地 直爲派送於都會各處 故京城入來絶無 物種極貴 松商都賈之弊 各別痛禁 依帽子廛人之下往灣府 定價以給於松商例 送人於康津海南等處 從時價定給於松商及各處事也"

장이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3. 장시 변동의 변수

1) 국가=관의 역할

장시는 애당초 발생부터 국가의 정책 특히 구휼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장시는 특히 흉년에 농민이 기근을 모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1470년(성종 1, 경인)에 場門이란 이름의 市鋪가 처음 열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열린 곳은 바로 전라남도였다. 이때의 장문은 누가 하고자 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바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全羅 一道의 인민들이 서로 모여 시포를 열었고 여기에 기대어 흉년의 어려움을 온전하게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63) 전라남도에 시포 즉 장문이 서게 되는 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1509년(중종 4) 6월에 가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 大司憲 權弘이 朝講 자리에서 한 말 중에 "전에 高台弼이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흉년으로 인하여 (장문을) 설립하여 진휼책으로 삼았습니다."(64)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따른다면 장문은 고태필이 전라도관찰사를 하는 동안에 열렸고, 민이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고태필의 권장으로 세워졌다는 느낌을 준다. 고태필은 1470년(성종 1) 4월 신유에 대왕대비 앞에 나가 전라도관찰사로서 謝恩하였다.(65) 그건 그가 이때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인 1471년(동 2) 그해 말까지는 관찰사로 계속 재직하였다. 같은 해 2월 신유에 기록된 왕의 諭書를 보면

"경의 임기 만료가 이미 가까워 와서 매번 경이 외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했음을 생

(63) 『成宗實錄』 권27, 성종 4년 2월 임신.
(64) 『中宗實錄』 권8, 중종 4년 6월 갑자.
"(大司憲 權)弘曰 全羅道爲場門 猶京之市也 前者高台弼爲觀察使 因年凶設立 以爲賑恤之策"
(65) 『成宗實錄』 권4, 성종 원년 4월 신유.

각하고 있노라. 지금 荒政이 바야흐로 급하여 비록 賑恤使가 있지만 경은 이미 그 방면에 전념하여 무릇 민간의 병을 다스리고 적절히 진휼하여 구제함에 모두 평소에 다한 바가 있다. 그러니 부득이 경을 가을까지 (전라도관찰사로) 머물게 하니 경은 마땅히 더욱 마음을 다하여 내가 중책을 맡기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노라."(66)

라고 되어 있다. 즉 고태필은 이미 지난해의 흉년을 훌륭히 수습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시켜 가면서 한번 더 흉년을 잘 처리해줄 것을 당부받고 있었다. 이미 흉년을 잘 처리한 경험이란 바로 1470년 경인년의 경험을 말하는데 그 경험이란 무엇일까? 전후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그건 바로 場門의 설립이었다. 그는 장문을 설립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흉년을 온전히 넘기게 했던 일로 한 해 더 임기를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관찰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왕의 특별 부탁을 받고 있었다.

이상의 기록들을 정리하면 장문은 물론 백성들 스스로 세울 만한 조건들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라도관찰사로 온 고태필의 적극적인 진휼책의 일환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문의 운명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흉년에 장문을 열었다는 첫 해로 기록된 1470년보다 2년후인 1472년(성종 3)에도 전라도의 장문에 대한 문제를 호조가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때는 고태필이 황해도관찰사로 옮겨간 뒤였다.(67) 그 내용에 따르면 전라도 무안 등 여러 읍에서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有無相遷을 위한 장이 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전라도관찰사 金之慶은 '逐末'이라든가 '物價騰踊'이라든가 등의 이유를 들어 이미 금지하였고, 호조도 이를 받아 왕명으로 금단케 할 것을 청하였다. 또 왕은 그 청을 따랐다.(68) 관찰사가 바뀌면서 장문에 대한 입장

(66)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2월 신유, 8-555.
"卿遞期已近 每念卿久勞于外 今荒政方急 雖有賑恤使 卿旣專方面 凡民間利病 賑救緩急 皆所素悉 不獲已留卿 以待秋成 卿宜益加盡心 以副予委重之意"
(67) 『成宗實錄』 권18, 성종 3년 5월 임자.
(68) 『成宗實錄』 권20, 성종 3년 7월 임술.
"戶曹啓 前承傳敎 陳弊者有言 全羅道務安等諸邑 興利之徒 稱場門 群聚貽弊於民

도 바뀐 셈이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편리하다고 여기는 장문이, 그것도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장문이 그리 쉽게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487년(성종 18)에는 장문이 도적들의 贓物을 처분하는 장소로 이용된다고 하면서 올해는 풍년의 조짐이 있으니 도적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임시로 장문을 파하게 할 것을 청하고 있다. 물론 이런 청을 하면서도 "장문은 구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폐할 수는 없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그 단속이 도적 방지를 위한 임시 방편일 뿐, 장시 자체를 원천봉쇄하자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당시 왕과 대신들의 분위기에서 장시 폐지의 요청에 대한 답은 '불가'였다.

이렇듯 장시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추세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국가가 보는 장시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구휼이었다. 장시의 개시는 구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1607년(선조 40)에 헌부가 "난리 이후에 백성들이 정처가 없어 장사로 생업을 삼는 것이 마침내 풍속을 이루어 농사에 힘쓰는 사람은 적고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니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69)라고 한 말도 그렇다.

조선후기에도 장시는 흉년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여전히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었다. 비록 도둑이 극성하더라도 흉년을 넘으려면 장시밖에 없다는 이야기 속에 장시 존재의 이유가 구휼적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0)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바퀴 굴러 진휼청이 스스로 나서서 "門에다 사사로이 시장을 열어 그 가운데를 좇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노리"(71)는 지경에까지 나아갔다. 이로 볼 때 국가가 시종일관 장시=구휼이라고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기저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장시는 지방관과 중앙정부가 장시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

場門廢置便否 商議以啓 臣等文移 全羅道觀察使金之慶報云 道內諸邑人民 所在街路 稱場門 每月兩度群聚 雖曰以有易無 捨本逐末 物價騰踊 利少害多 已令諸郡禁止 請更令觀察使嚴加禁斷 從之"

(69) 『선조실록』 권212, 선조 40년 6월 을묘.

(70) 『備邊司謄錄』 53책, 숙종 29년(계미, 1703) 3월 17일, 5-139-가나다라.

(71) 『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 10월 정묘.

게 됨에 따라 이제는 점차 '민원'의 형식을 빌어 분출하였다. 지방관은 장시를 통하여 정령을 반포·고지하였고, 관수물자를 장시에서 조달하였고, 관내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장시가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72)

장은 국가의 관심사가 되었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렇듯 여러 가지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역시 구휼의 측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돈이 된다는 데 있다. 어떻게 장이 국가에 돈을 가져다 주었나? 먼저 장세를 들 수 있다.(73) 지방관은 장세를 징수하여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충하였다. 장세는 이미 17세기부터 징수되어 지방경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영조 초년만 해도 '名不正'하다 하여 부정되었다. 다만 진휼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74) 그러나 차츰 장세를 거두자는 쪽의 의견이 우세해 져 가 어느 틈엔가 당연한 세가 되어 버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세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갔고, 세수의 확대를 목적으로 장시의 난립이 용인되었다. 사실 『동국문헌비고』부터 장시에 대한 파악이 상세해지는 까닭도 장시가 주요 수세원이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세금의 양도 늘어났다.(75) 그리하여 博川의 경우는 津頭場에 오가는 商船에서 거두는 세가 한 읍의 재정을 전적으로 뒷받침할 만큼 크기도 하였다.(76) 나주의 향교는 제수도 장세로 마련하였다.(77)

그 다음 장시를 이용한 환곡놀이나 貿穀 등의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

(72) 李憲昶, 1994「朝鮮後期 忠淸道地方의 場市網과 그 變動」『經濟史學』18, 16~22쪽.

(73) 장시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金大吉,『朝鮮後期 場市硏究』(1997, 國學資料院) 중 제4장「場稅의 徵收와 用途」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74)『備邊司謄錄』79책, 영조 2년(병오, 1726) 5월 9일, 7-888-나.

(75)『備邊司謄錄』250책, 철종 14년(계해, 1863) 정월 12일, 26-10나.
"近來 上司所不知之稅額 日加月增 非但津浦爲然 竝與場市同然 無處不徵 無物不榷"

(76)『日省錄』헌종 12년(병오, 1846) 8월 21일「淸北暗行御史朴永輔進書啓別單」
"一博川之爲邑 專賴津頭收稅 津頭之納 專賴場市商船"

(77)『國譯 海錦吳達運文集』(1993, 국역해금집발간위원회)「羅州鄕校脯脩釐革序」
"… 當脯脩之肇 市儅例於賤售 而莫之敢增弊於踊 而有魚市征屠之規 是不敬也 鄕之士恥焉 …"

다. 따라서 지방관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作米나 作錢은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78) 민인들은 관수미로 납세할 쌀을 장시에서 구매해야 했다. 어느 장시나 모두 거래되는 물종은 쌀이다. 백성들이 납세미를 구해도 장에서 구하고 지방관들이 移貿니 立本이니 해서 환곡장사를 할 때도 장에서 한다. 관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런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은 장세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심지어는 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수미를 장시에 내다 팔아 다시 이를 환곡으로 거두어들이는 일까지 있었고 그 사이에 시가차를 이용하여 돈을 챙기기도 하였다.(79)

忠淸兵使 李台望은 侍藥廳을 설치하던 날에 營中의 吏屬을 市場에 보내어 蔽陽子를 買占하고, 영중에 실어들여 때를 타서 謀利할 계획을 세웠다가 고발되기도 하였고,(80) 천안군수 金得大는 도살을 낭자하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파직당하기도 하였다.(81) 이런 사례는 드러난 경우일 뿐이었다. 장시를 이용해 관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이미 관행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시의 변동에 관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장시에 곡식이 있게 되면 부세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지적도 나왔다.(82) 장시는 국가의 정책에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장시 변동의 해석에는 위로는 국가, 아래로는 지방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고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묘한 구석이 이 때문에 있게 된다.

2) 상설점포와의 공존

지금도 우리의 장은 앞에 든 광주 말바우사거리의 말바우장처럼 '대도시의 장', 내지는 '상설시장 앞의 정기시'란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정기시가 상설시장과 공존할 수 있었을까? 이는 머리말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다. 단순한 답 하나를 들어 보겠다.

(78) 『備邊司謄錄』 98책, 영조 11년(을묘, 1735) 10월 12일, 10-103-다.
(79) 『日省錄』 순조 16년(병자, 1816) 6월 21일 「命時囚洪秀晩等議處嚴耆等道査」
(80)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7월 정해.
(81) 『영조실록』 권38, 영조 10년 8월 갑인.
(82)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 12월 무인.

18, 19세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다. 장시 외에 보조유통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점막이나 여점 등이 많이 생겼다. 점막이나 여점 등은 그 규모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상설점포로 보인다. 정기시장을 보완하는 소규모의 상설점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근래 歲幕에서 藏牌를 금했는데 기강이 해이해져 店幕이나 場市에서 屠賣하는 일이 많다. 형조와 한성부에서 금지시키도록 하소서."(83)

"場村店幕 간에 낭자하게 판매하고 이를 常事로 여기며 심지어 세를 거두어 官用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84)

이런 기록들은 그 외에도 많다. 쇠고기를 파는 곳으로 장시와 점막을 병치시켜 거론하고 있다. "場市나 旅店에서 드러내 놓고 판다."(85)고 하여 점막 대신 여점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기록들이 많다는 것은 장시가 점막이나 여점 등과 상관계수가 높다는 뜻이다. 점막이나 여점은 어떤 기구인가?

15세기에 천 3백여개소에 달하던 院은 임란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대부분 혁파되거나 점막 등으로 바뀌어갔다. 장날을 순회하던 행상들은 점막이나 여점에서 숙식을 하였는데,(86) 그러한 과정에서 興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87) 점막은 그대로 상행위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소규모의 상설점포라고 볼 수 있다.(88) 따라서 점막은 장시의 보조기구로 그대로 유지되었지 장시로 전환할 필요는 없었다. 이는 마치 장시가 상설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런 연유로 점막과 장시는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같은 상설화된 보조유통기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지금까지도 장시가 어느 정도까지는 '건재'한 까닭도 상설점포와 대립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유기적 상보관계를 이루는 오랜 경험

(83) 『備邊司謄錄』 211책, 순조 23년(계미, 1823) 12월 12일, 21-529나-다.
(84) 『備邊司謄錄』 222책, 순조 34년(갑오, 1834) 3월 10일, 22-507라-508다.
(85) 『備邊司謄錄』 222책, 순조 34년(갑오, 1834) 10월 21일, 22-573나-다.
(86) 『漢城府完文』 "場市行賣之場 店幕投留之地"
(87) 『日省錄』 정조 15년 4월 5일 「店幕卽是興販中一事」
(88) 이헌창, 1994, 앞 논문, 20쪽.

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공교롭게도 도시의 상설시장은 대개가 일본인이 세웠다. 그러자 조선인들은 본능적으로 일본인을 거부했고 그것은 교역의 장소로서 상설시장마저 멀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여전히 조선인이 상인인 정기시장으로 달려갔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특별한 근대성의 경험 때문에 장시는 민족상권이란 이름으로 장시의 근대성을 채워나갔던 것이다. 우리의 전통상권이란 이미지가 일제에 의해 장악된 근대적 상설시장과는 반대로 많은 조선인들을 끌어 당겼던 것이다.(89)

5. 맺음말—장시의 근대성과 도시문제

스키너는 교통운송수단이 발달하면 소시장은 소멸되고 높은 인구밀도를 갖는 큰 시장지역이 설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근대화의 과정이라 하였다. 말을 바꾸면, 장시는 근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행위인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장시의 근대성이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우리 역사는 근대를 거쳤지만 아직도 장은 선다. 그것도 대도시에 선다. 그렇다면 장시는 어떤 식으로건 나름의 근대를 겪은 셈이다. 장시가 겪은 근대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어떻게 장시가 아직까지도 계속 서는가에 대한 답은 장시가 구휼에서 비롯되었다는 발생 동기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국전쟁 후에 생성되는 장시가 많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점도 정기시가 최소한의 필수품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장시에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없다. 결국 장시는 하층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 지금도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묘하게도 장시의 숨이 길다. 물론 그것을 정체성 때문이라고 치부한다면 답은 간단할 지 모른다. 그러나 좀더 깊숙히 들여다

(89) 이런 점에 대하여는 朴宣嬉,「全北地域 定期市場의 特性과 變化—朝鮮後期에서 日帝時代까지—」(1996, 서울대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참고.

본다면 우리가 겪은 근대성의 경험이 지니는 특수성 때문에 장시는 단지 '정체된 중세의 연속'이 아니라 특수한 경험으로서 '장시의 근대성'을 겪은 것이다. 그점이 장시의 변동 양상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게 만든다.

장시를 연구하면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5일장이 숫적으로 200년전이나 별로 줄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 중요 장들은 19세기 초에 이미 그 자리를 분명히 잡았고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함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동국문헌비고』(1770년) 단계에서 『임원경제지』(1830년)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변화가 별로 없다. 이 지역의 장시들이 18세기 중엽에 이미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런 안정성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세기에 안정성을 유지하게 했던 요소는 店幕이나 旅店 등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점막이나 여점은 정기시장을 보완하는 소규모의 상설점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장시가 근대로의 이행기를 거치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같은 상설화된 보조유통기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격적인 근대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장시는 어느 정도 '건재'하다. 그 까닭은 한편으로는 상설점포와 대립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유기적 상보관계를 이루었던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일제강점기의 장시는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말할 수 없는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장시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또 장시=전통상권이란 이미지가 일제에 의해 장악된 상설시장과는 반대로 많은 한국인들을 끌여 당겼던 것으로 보인다.

또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시는 단지 교역처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오히려 20세기를 버텨올 수 있었다.

"조선 사람들의 최대의 즐거움은 장을 보러 가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조선에는 상점이 거의 없고 매 5일 또는 6일만에 장이 열리고 그곳에서 자기

가 만든 물건을 바꾸고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이다. … 장터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고, 행상을 하고 남의 얘기를 늘어놓는 일 외에 기분풀이로 술 마시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다. 옷감을 사러 갔다가 빈털털이가 되어 돌아오는 농부도 흔히 있지만 그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90)

이 글은 1907년에 그리피스가 쓴『隱者의 나라 韓國』중「조선의 경제사정」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듯이 전통시대의 장시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고"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자기 의견도 교환하고, 남의 얘기도 늘어놓고, 기분풀이도 하고, 술마시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 한마디로 즐거운 곳이었고 바깥세상으로 통하는 '창'이었다. 사람들은 장에서 보고들은 것들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깨우치고 다시 장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였다. 또 농사일에 쉴 틈이 없는 농민들은 장날이 휴식과 오락을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또 장에 나온 사람들은 인근의 주민들과 함께 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놀이문화와 공동체 의례를 통해 같은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결속력을 높혀 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터의 문화는 조선후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민중들의 활기찬 생활의 반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문화의 주류를 이루었던 양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 장시는 이처럼 생활문화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장시는 단지 경제논리에 지배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논리 밖에 서 있는 장시문화의 모습, 거기에 장시의 근대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 숨어있는 모습은 민중들의 생활문화와 겹친다.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문화는 오늘 대중문화의 뿌리다. 따라서 바른 대중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도 장터문화의 바른 이해는 그 전제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가서 얻은 장시의 모습이 바로 장시의 근대성인 것이다.

하지만 정기시장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교통의 발달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정기시장은 조만간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설시장이 대체할 것이다.(91)

(90) W. E. 그리피스 原著/申福龍 譯註, 1976『隱者의 나라 韓國 ; Corea, The Hermit Nation』Ⅲ, 탐구신서95, 188쪽.

(91)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읍장들은 그나마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면장들은 더 이상 장이 아니었다. 그저 장옥들만이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대체되는 것은 상업발달에 따른 당연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아쉬움은 느낄 수 있겠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잠시 도시문제에 대해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장시를 통해 근대화를 다룰 때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도시문제이다. 도시와 장시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새로운 도회처는 포구와 장시가 있는 곳에 생겼다.(92) 도시는 인접지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장시 또한 중심지와 의존 지역간을 거미줄 같이 망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지역간의 연망의 핵심고리가 장시망이다. 그 장시들간의 위계가 곧 중심지와 주변지를 구분하고 여기서 중심지가 도시의 역할을 담당, 도시로 성장해 가기 십상이었다. 도시는 바로 그런 장시의 중심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공간적인 이해 위에서 장시망 형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장시들간의 위계를 세워보고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장시를 도시 내지 준도시지역의 발달이란 측면에서 살펴 보는 일은 결국 근대도시의 역사를 밝히는 일이다. 근대화의 새로운 분위기는 결코 향촌의 것일 수 없었다. 따라서 향촌과 농업은 중세 봉건사회 해체의 모습을 고찰하는데는 매우 유용한 대상들이지만, 근대의 발생문제를 밝히는데에는 그만큼 부적절한 대상인 셈이다. 따라서 상업과 도시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조선후기 사회상에 접근해 가는 것이 그 변화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공간적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며, 현대 도시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흔히 닥치는 장벽이 도시의 발달이 더디다는 종전의 고정관념이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종전의 이해가 다 틀렸다거나, 무조건 도시

남아 있는 빈 공간일 뿐이었다. 예전에 하나의 읍장을 중심으로 면장들이 장시망을 이루었다면 지금은 광주광역시나 목포와 같은 도시의 도매상을 중심으로 읍장들이 예전의 면장처럼 거기에 예속된 하부 장시로 편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강원도의 경우에서도 이 점은 여실히 확인된다. 강원도 시장 사정은 『강원도시장민속』(1995, 국립민속박물관)에 조사 정리되어 있다.

(92) 『日省錄』 헌종 6년(경자, 1840) 9월 10일 「大王大妃殿嚴飭內司及各宮各司收稅作奸之弊」
右議政趙寅永啓言 凡浦口場市之都會處 依托宮房創設主人名色 以爲榷利之弊 從前以來 不一其端

가 발달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차를 말해 보고자 한다. 종전에 도시의 더딘 발달을 말할 때, 도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쓰는 것이 '인구 얼마 이상' 등등과 같은 양적 평가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도시의 문제는 결코 '인구 얼마 이상'이라는 양적 평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도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인구 못지 않게 그 기능이 기준이 된다. 이때 인구는 경우에 따라 1,000명 혹은 2,000명 정도 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구의 숫자보다는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 다음 그런 특성을 가지고 도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브로델은 도시가 도시로서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보다 열등한 생활을 하는 지역을 앞에 놓고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런 기준에 의해 계산해 본 도시인구의 하한치는 프랑스가 최소한 2,000명, 영국은 5,000명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도시의 특권을 부여받은 곳이 3,000여 곳이나 되었고 이들의 평균 인구는 4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400명의 인구라 해도 도시의 특성을 가지면 도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도시들은 가까운 시골 지역을 "눌러 이기게" 되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곳으로 뚫고 들어가는 반면에 그 자체는 더 인구가 많고 더 활동적인 대도시에 잡아먹히고 종속당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들은 하나의 "태양 도시(SUN CITY)"를 따라 도는 도시체계를 이룬다고 보았다.(93) 우리나라의 근대도시화 문제를 다룰 때도 해당 구역의 특성이 도시적 속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검토하고서 도시냐 아니냐를 구분해야지 단지 인구수만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도시로 편제된 신의주나 청진의 인구는 1915년에 각각 6,110명과 6,484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도시가 성장했다면 그 매개는 장시와 같은 상업적 매개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실제 새로운 도회처

(93) 페르낭 브로델/주경철 옮김, 1996『물질문명과 자본주의』I -2 일상생활의 구조 下, 까치, 698~703쪽.

는 포구와 장시가 있는 곳에 생겼다. 상업권 내 연계망의 결절점과 도시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필자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